

아이유 직접 밝힌 #절친 정은지·유이나 #드림 #이상형



가수 아이유가 정은지와 절친 케미를 드러내며 근황을 공개했다. 아이유는 13일 오후 KBS라디오 FM '정은지의 가요광장'에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정은지는 아이유와의 인연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지 벌써 8년 정도 됐다. 제가 그때 '팬이요'라고 말했는데 그게 8년이나 됐다. 그리고 나서 특집에서 만나고 셀카를 찍었는데 남아있다. 지워졌으면 하는 사진이다"며 "오히려 방송에서 본 건 적은 것 같다"고 했다. 아이유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많다. 외국에서 호텔이 근처라서 찾아간 적도 있다. 건강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유이나와 위아래층 살아...자취 하고 있으니 부모님들도 든든해 하셔”

“양희은 선생님 곡 리메이크 하고파...엑소 디오 ‘괜찮아도 괜찮다’ 추천”

정은지는 “아이유가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었다”고 말하자, 아이유는 “언제 밀려났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지는 “8년 전 즈음인가, 지금은 개나리이다. 너랑 나 이후에 바뀌었다. 민망하다”고 했다. 신곡 ‘블루밍’에 대해 ‘갯갯함’이라고 말한 아이유. 정은지가 “실제 지은씨는 사람을 향한 마음에 감동감이 있냐”고 묻자, 아이유는 “있는 것 같다. 제 주변에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 물건이든, 사람이든 생기면 갯갯하게 해내는 것 같다. 제가 관심사가 많지 않아서 친구도 오래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영화 ‘드림’에 대해 “5월부터 촬영 들어간다. 최근에 만나서 리딩도 하고 밥도 먹고 했다. 재밌을 것 같다. 극 자체도 유쾌하고 재밌다”며 “약간 은지씨같은 캐릭터다. 약간 옆에 두고 싶은 사람 같은 캐릭터다”라고 소개했다. 아이유는 오래 씹어 먹는 습관에 대해 “제가 좋아해서 하는 습관이다. 그렇게 씹어야 맛있지 않나. 저는 30분 넘게 씹어먹는다. 그게 더 맛있다. 그래야 줌도 나오고 그렇다”며 “영양제에도 환장한다. 먹

고 나면 배부를 정도다. 사실 모르겠다. 효과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말하지 않나. 죽고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이유는 최근 무엇을 하고 지내냐는 물음에 “제가 쓰지 않을, 다른 분들에게 드려도 좋을 작사를 하고 있다. 화자가 내가 아니다. 보통 제 것을 많이 해왔는데 올해 모토가 ‘가볍게 많이’다. 그래서 이제 제 앨범 외에도 외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싶은 시즌이라 많이 쟁여놓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절친 강한나와 유이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이유는 강한나에 대해 “유이나와 그냥 집에서 수다 떨고, 칠링한다. 독특하기도 하고 재밌다. 장난이 되게 많은데, 텐션이 높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장난꾸러기라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이나씨와는 같은 건물에 산다. 위아래 층에 살아서 TV보고 만나서 뭐 하는 류는 없다. 만나서 자기 할 일 하고, 언니와 저는 다른 거 하고 있고 자기 할 일을 각자 한다. 든든하다”면서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새

벽이라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독거, 아니 자취를 한다. 지금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든든해 하시고 좋아한다”고 밝히 웃음을 자아냈다. 아이유는 앞서 유튜브를 통해 만우절 거짓말로 운전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다들 많이 속더라. 아버지가 연기를 정말 잘 해주셨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같다. 저희 팀 내부에서도 엄청 뿌듯해하고 있다. 면허는 아직 딸 생각이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따기 어렵다고 하더라. 저는 운동신경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저까지 운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교통체증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네 저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최근 넷플릭스 ‘종이의 집’을 보고 있다는 아이유는 꽃힌 음식으로 ‘항정살’을 꼽았다. 아이유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고 지내는데 진짜 살이 쉽게 찌더라. 그래서 이번에 런닝머신을 샀다. 체력 증진을 한다. 10분 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로 타고나길 연골과 뼈가 약하고 그렇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대 후반인 아이유는 자신의 서른세 살을 묻는 질문에 “서른세 살에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서른 살이 되면 되게 멋진 나이라 생각했다. 멋있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아이유는 리메이크하고 싶은 곡에 대해 “양희은 선생님의 ‘가을아침’도 했지만 선생님 곡 중에 명곡이 너무 많다. 선생님 곡은 또 다른 곡을 리메이크 해보고 싶다. 뭐 해 볼지는 생각 못했다”며 “‘꽃갈피’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전 요즘에 항상 추천하는 곡인데 엑소 디오씨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추천한다. 진짜 ‘괜찮아도 괜찮다’는 얘기이다. 연습생 이후엔 노래를 듣고 뭔가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건 없었다. 10년 넘게 없었다. 그런데 이 곡을 듣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 밤에 그랬다. 진짜 위로가 되더라. 반복 재생해놓고 소리 줄여놓고 자면 잠이 오고, 작업이 안 풀리거나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런 밤. 그럴 때 듣는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아이유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오랜만에 이상형 질문을 받아 본다”며 “전 정수할 것 같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좋다”고 덧붙였다.

싸이, MV 67억 뷰 대기록 ‘역대급’

가수 싸이(PSY)가연일 역대급 뮤직비디오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싸이의 정규 8집 ‘4x2=8’ 더블 타이틀곡 ‘뉴 페이스’(NEW FACE)와 ‘아이 러브 잇’(I LUV IT)은 최근 각각 조회수 2억 뷰, 1억 뷰를 돌파했다. 특히 ‘아이 러브 잇’ 뮤직비디오가 ‘강남스타일’, ‘오빠 딱 내 스타일’, ‘젠틀맨’(GENTLEMAN), ‘대디’(DADDY), ‘행 오버’(HANDOVER) (feat. Snoop Dogg), ‘뉴 페이스’에 이어 역대 뷰 고지를 밟으면서 역대 단위 조회수 기록 중인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총 7개로 늘어났다.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공개만으로도 항상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남스타일’은 올해 초 35억뷰를 돌파했으며, K팝 MV 최다 조회수 기록을 날이 경신 중이다. 여기에 13억 뷰를 넘은 ‘젠틀맨’부터 7억6000만 뷰를 기록 중인 ‘오빠 딱 내 스타일’, 4억 8000만 뷰의 ‘대디’, 3억 4000만 뷰 ‘행 오버’, 2억 뷰 ‘뉴페이스’, 1억 뷰 ‘아이 러브 잇’까지 싸이의 역대 뮤직비디오 조회수 총합은 약 67억뷰에 달한다. 전무후무한 역대급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는 싸이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양연화’ 유지태·이보영·박진영 전소니, 4인4색 캐릭터 포스터 공개

‘화양연화’가 서로 다른 듯 닮은 감성이 묻어나는 4인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tvN 새 토일드라마 ‘화양연화-삶이 꽃이 되는 순간’(극본 전희영 / 연출 손정현) 측은 13일 유지태(한재현 역), 이보영(윤지수 역), 박진영(과거 재현 역)과 전소니(과거 지수 역)의 모습이 담긴 캐릭터 포스터 4종을 외부에 선보였다. ‘화양연화-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하 ‘화양연화’)는 아름다운 첫사랑이 지나고 모든 것이 뒤바뀐 채 다시 만난 재현(유지태 분)과 지수(이보영 분)가 가장 빛나는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며 그리는 마지막 러브레터다. 1억 2인으로서 전개되는 독특한 이야기 구조뿐만 아니라 유지태와 이보영의 성숙한 멜로, 박진영과 전소니의 싱그러움 로맨스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현재 현과 윤지수의 모습이 담겼다. 현재와 과거, 다른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두 남녀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특히 한재현, 윤지수 각자의 표정을 포착해 네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온도가 섬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유지태와 이보영의 그윽한 시선 속에는 그리움과 추억, 사랑의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 깊이를 더한다. 많은 것이 변화한 상황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한 현재의 한재현과 윤지수가 다시 한 번 만들어낼 인생의 ‘화양연화’는 어떤 모습일지, 1회 방송이 더욱 기대된다. 보기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케미스트리로 빛나는 청춘 그 자체를 보여주는 박진영과 전소니의 모습도 시선을 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떨림과 그 속에 피어나는 첫사랑의 향기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에이핑크 “‘덤더럼’으로 1년 3개월 만 컴백, ‘역시’란 말 듣고파”

2011년 데뷔 메가 히트곡 남기며 ‘청순돌’ 사랑받아 “중독적 멜로디 기억 남는 댄스곡...새로운 색 담아”

에이핑크(Apink)가 13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에 미니 9집 ‘룩’(LOOK)과 타이틀곡 ‘덤더럼’(Dumhdurum)을 발표했다. 이후 8시에는 네이버 V라이브로 전 세계에 팬 쇼케이스를 생중계하고 신곡 ‘덤더럼’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지난 2011년 데뷔한 에이핑크는 ‘러브’(LUV), ‘미스터 츄’(Mr. Chu), ‘노노노’(NoNoNo) 등 메가 히트곡을 남기며 ‘청순돌’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1도 없어’와 ‘%%(응응)’으로 성공적인 콘셉트 변화를 이뤘다. 또 멤버 각자가 연기, CF, 예능, 유튜브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개인과 그룹 활동 모두 안정적으로 꾸준히 펼치고 있는 에이핑크는 많은 걸그룹들의 롤모델로 자리잡으며 막강한 10년차 K팝 대표 걸그룹의 지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응응) 이후 1년 3개월 만에 신곡 ‘덤더럼’으로 컴백하는 에이핑크가 직접 앨범 관련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전했다.

- 1년 3개월 만 완전체 컴백이다. ▶(초롱) 팬분들께서 오래 기다려주신 새 앨범이 발매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또한 너무 기쁘다. 이번 앨범이 발매되면서 1년 3개월 만에 신곡 ‘덤더럼’이 발매되는 순간은 정말 변함없이 설레는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멋진 무대 날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 물론 모든 앨범이 그랬지만, 이번 앨범은 그 여느때보다 공들였던 것 같아요. 더 좋은 모습 드러내고 욕심을 낸 만큼, 신선하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타이틀곡 ‘덤더럼’은 어떤 곡인지. ▶(나은) 중독적인 멜로디가 기억에 남는 굉장히 매력적인 댄스곡이에요. 덤덤한 마음을 ‘덤더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저희가 이번엔 또 새로운 색깔을 담아봤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블랙아이드필승, 전군과 또 다시 뽐냈다. 3번째 작업을 하게 된 소감은. ▶(초롱) 우리의 색깔을 너무나 잘 아는 오빠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이번 곡도 너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늘 멤버들과 팬분들 입감을 생각하면서 곡을 써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빠들과 함께한다는 얘기를 듣고 곡이 나오기 전부터 관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에이핑크의 퍼포먼스도 기대가 된다. ‘덤더럼’의 포인트 안무 혹은 킬링 파트가 있다면. ▶(보미) 모든 파트 하나하나가 다 킬링 포인트라서 뽑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후렴구 ‘덤더럼’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덤더럼’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거짓말 같다고 말하지마’라는 부분 안무가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 미니 9집 ‘룩’은 어떤 앨범인지. ▶(보미) ‘룩’이라는 앨범명처럼 멤버들 각자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한평생의 매력이다 돋보이는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 ‘룩’의 콘셉트 혹은 매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영) 리마인드. ‘이게 에이핑크다’하고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역시 에이핑크



다 라는 말을 듣고싶기도 합니다. - 추천하고 싶은 수록곡이 있다면, 팬송 작사에 박초롱, 정은지가 참여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은지) 이번에 특별하게 유닛곡을 수록했는데 각 팀별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롱 언니가 작사한 ‘너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는 9년의 시간을 함께한 팬들과 멤버들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Everybody Ready?’는 작년 8주년 때 디지털 싱글로 나왔던 팬송인데 이번 앨범에 수록됐어요. 제가 가사를 썼어요. - 올해 9주년을 맞는 에이핑크. 10년 차에 접어든 감회가 남다를 듯하다. ▶(초롱)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올해 9주년, 10년 차가 되었지만 아직도 앨범에 대한 욕심과 목마름은 데뷔 초와 같아요. 소중한 앨범이 쌓여가듯 멤버들과 팬들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기분이 들어 행복합니다. ▶(남주) 별로 실감이 안나요.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들이 많으니 앞으로도 더더욱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도 없어’, ‘%%’으로 성공

적인 콘셉트 변화를 이뤘다는 평이다. 어떤 고민과 과정이 있었는지? ▶(은지) 콘셉트 변화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성장하고 그 과정에 맞게 자연스럽게 음악도 같이 변화해 온 것 같아요. 저희가 낼 수 있는 분위기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만의 색깔을 내면서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 멤버들에게 에이핑크란. ▶(하영) 전자매 ▶(남주) 나의 일기장 ▶(나은) 가족 같은 존재 ▶(은지) 뿌리 ▶(보미) 청춘 인생 ▶(초롱) 전부 - 에이핑크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는 국내의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에이핑크) 항상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는 우리 팬다(에이핑크 공식 팬클럽명)를 덕분에 이렇게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이 납니다. 9주년을 맞이까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우리 팬들은 늘 새로운 선물 같은 존재예요.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노래 들려드릴테니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